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임 정 하¹⁾ 강 현 지²⁾ 박 선 혜³⁾ 윤 상 희³⁾ 최 정 원³⁾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본 연구는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37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t 검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 중 경직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았고,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과민 반응은 남학생의 어머니들이 여학생의 어머니들보다 더 높았다. 둘째, 경직성이 높고 활동성과 지속성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기의 정서조절곤란에 있어 어머니 행동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및 상담 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청소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 어머니 반응, 정서조절곤란

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E-mail: khj0204@korea.ac.kr)

3)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로 및 이성 관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lbert, 2012; Hankin et al., 1998; Hessler & Katz, 2010). 최근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정서조절곤란(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에 주목하고 있다. 정서조절 곤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분노, 슬픔,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nefski, Kraaij, & Etten, 2005; Silk, Steinberg, & Morris, 2003).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소년들은 공격행동, 음주와 같은 사회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선미, 2007; 이재문, 조영구, 이은모, 2014). 또한, 정서조절곤란은 섭식장애와 불안증상 등 청소년기의 다양한 정신병리 현상의 초진단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McLaughlin, Hatzenbuehler, Mennin, & Nolen-Hoeksema, 2011). 이처럼 정서조절곤란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이다(Weinberg & Klonsky, 2009). 그러나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하는 기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곤란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조절능력의 결핍으로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Gratz & Roemer, 2004).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이해는 정서조절의 개념적 정의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과거 일부 학자들은 정서조절을 정서의 경험과 표현을 통제하고 정서적 각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Cortez & Bugental, 1994; Garner & Spears, 2000; Kopp, 1989; Zeman & Garber, 1996). 그러나 정서를 통제하기만 하는 것은 개인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다른 학자들은 정서 경험을 통제하기보다는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며 정서적 반응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Cole, Michel, & Teti, 1994; Linehan, 1993; Thompson & Calkins, 1996). 또한, 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정서조절에는 개인이 상황적 요구에 적합한 정서적 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Cole et al., 1994; Melnick & Hinshaw, 2000; Thompson & Calkins, 1996). 즉, 정서조절은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Weinberg & Klonsky, 2009). 이에 Gratz와 Roemer(2004)는 정서조절을 자신의 정서를 자각하고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 개인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정서조절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개념화하였고, 이러한 능력이 결핍될 경우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기질이 있다. 기질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자기규제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다(Rothbart & Bates, 1998). 기질 연구의 선구자 역할을 한 Thomas와 Chess(1977)는 기질이 개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행동양식이며, 새로운 사람, 상황, 사건에 대한 반응 패턴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행동양식이 회피적이거나 경직되는지,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는지, 활동적인지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상황에서 경직되는 성향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Jaffe, Gullone, & Hughes, 2010). 반면,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며 끈기 있는 성향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심으로 정서를 조절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의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수, 박성연, 2002). 또한, 새로운 상황이나 자극에 쉽게 적응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아동들은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이경님, 2009; 임희수, 박성연, 200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나 정지영과 김종남의 연구(2011)에서 낮은 상황에서 조심성이 많고 행동을 억제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떠한 성향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정서조절곤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질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도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정서조절곤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행동을 들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믿음, 목표, 가치를 반영하는 행동인 정서사회화를 통해 자녀들이 정서조절능력을 학습한다는 데에 동의한다(Denham, Bassett, & Wyatt, 2007;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이와 관련하여 Eisenberg와 동료들(1998)은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은 자녀가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지지적으로 반응하거나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감한 반응을 통해 자녀에게 정서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Eisenberg et al., 1998)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자녀 간의 대화도 더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Dunn & Brown, 1994). 자녀들은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어머니에게 정서적 위로와 격려를 더 많이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강이, 2007).

이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학습 기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곤란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등의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김지연, 남은영, 2011; 오지현, 2015). 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들은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김은정, 2011; 오지현, 2015). 또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사회적 유능감이 낮았고,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였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이지만, 정서조절과 관련하여 여전히 부모의 관심과 지도를 필요로 한다(Gottman & Nahm, 2007). 부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하는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청소년기 정서조절곤란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개인적 요인으로서 기질과 환경적 요인으로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청소년기 정서조절곤란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영향력에 대해

각각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질은 비교적 안정적 특성을 지닌 개인 내적 요인으로, 기질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후, 상대적으로 볼 때 변화 가능하며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높고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강주리, 2010; 하혜신, 2007; 홍주현, 201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정서조절능력에 성차가 없다고 보고되어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김종희, 이지연, 2011; 유다미, 안도희, 2015). 기질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더 경직된 성향을 보였고(Vollhardt, 199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하는 성향이 더 높았다(정지영, 2011).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남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여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보다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무시하는

반응, 지지해주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오지현, 조미영, 2015).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과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내적 요인인 기질의 영향력은 타고난 특성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질을 통제한 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가정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상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1)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약 16세였다. 이 중 남학생이 186명(49.1%), 여학생이 193명(50.9%) 이었고, 중학생이 214명(56.5%), 고등학생이 165명(43.5%)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중학생은 107명(28.2%), 여자 중학생은 107명(28.2%)이었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79명(20.8%), 여자 고등학생은 86명(22.7%)이었다. 출생순위는 둘째(40.9%), 첫째(36.1%), 외동(15.0%), 셋째 이상(7.9%) 순으로 많았다. 부모의 연령대는 40대(부: 61.2%, 모: 83.1%), 50대(부: 36.1%, 모: 14.2%), 60대 이상(부: 1.6%, 모: 0.8%) 및 30대(부: 0%, 모: 0.8%)의 순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55.9%, 모: 55.4%), 대학원 졸업 이상(부: 27.4%, 모: 20.1%), 고등학교 졸업(부: 11.9%, 모: 19.3%), 중학교 졸업(부: 0.5%, 모: 0.8%) 및 전문대 졸업(부: 0.5%, 모: 0.8%)의 순으로 많았다. 직업의 경우 아버지는 사무 관리직(36.4%)이, 어머니는 가정주부(42.0%)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정서조절곤란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박지선(2013)이 중·고등학생을 대상

으로 수정·변안하여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34문항으로, 자각 7문항, 명확성 3문항, 비수용 7문항, 충동 6문항, 목표 4문항, 전략 7문항의 여섯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각은 자신의 정서에 주의 기울이지 않는 것, 명확성은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비수용은 부정적 정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정서에 대한 이차적인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충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목표는 부정적 정서로 인해 목표한 과제를 성취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전략은 상황에 적합한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시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형식으로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기질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Windle과 Lerner(1986)가 개발한 개정판 기질 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를 김순재(1996)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변안한 것을 정지영(2011)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수정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33문항으로, 경직성 10문항, 지속성 8문항, 활동성 15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직성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을 말한다. 지속성은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으로 주의 이동이 어려운 성향을 말하며, 활동성은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이며 잘 웃는 성향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형식으로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향의 기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경직성 .77, 지속성 .79, 활동성 .86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오지현(2013)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구성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 36문항으로, 감정코칭 반응 16문항, 감정무시 반응 10문항, 과민 반응 10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코칭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며 수용해주고, 이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반응을 말한다. 감정무시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못마땅해 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반응을 말하며, 과민 반응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인정하기는 하지만 불안해하며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

우 그렇다'의 5점 Likert 형식으로 청소년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해당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감정코칭 반응 .95, 감정무시 반응 .89, 과민 반응 .8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5년 8월 청소년 5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2015년 9월 청소년 43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참여 학생과 담임교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택배로 회수되었으며, 이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자료를 제외하고 379부(88.1%)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성별(남학생 1, 여학생 0)은 가변수화하여 코딩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여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고자 상관계수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를 산출하였다.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이 0.70 이상 또는 -0.70 이하이거나(양혁승, 2013) VIF가 3.3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이익섭, 이윤로, 2004). 분석결과, 예측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66과 .55 사이였으며, VIF는 1.2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의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정서조절곤란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기질의 하위요인들 중 경직성은 남학생 집단($M = 2.08$, $SD = .44$)이 여학생 집단($M = 1.99$, $SD = .4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 = 2.09$, $p < .05$). 즉,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표 1. 기질,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의 평균, 표준편차와 독립표본 t 검증 ($N = 379$)

		남학생 ($n = 186$)	여학생 ($n = 193$)	t
		$M (SD)$	$M (SD)$	
기질	경직성	2.08 (.44)	1.99 (.43)	2.09*
	지속성	2.55 (.44)	2.49 (.41)	1.45
	활동성	2.91 (.42)	2.97 (.45)	-1.44
부정적 정서	감정코칭 반응	3.18 (.72)	3.25 (.81)	- .78
표현에 대한	감정무시 반응	2.29 (.71)	2.19 (.74)	1.30
어머니 반응	과민 반응	2.40 (.58)	2.08 (.56)	5.41***
정서조절곤란		2.57 (.58)	2.59 (.50)	- .42

* $p < .05$. *** $p < .001$.

청소년들에 비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성과 활동성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요인들 중 과민 반응은 남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M = 2.40, SD = .58$)이 여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M = 2.08, SD = .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 = 5.41, p < .001$). 즉, 남학생의 어머니들이 여학생의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코칭 반응과 감정무시 반응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정서조절곤란은 남학생 집단($M = 2.57, SD = .58$)과 여학생 집단($M = 2.59, SD = .50$)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청소년들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을 구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정서조절곤란은 기질 중 경직성($r = .60, p < .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지속성($r = -.19, p < .01$)과 활동성($r = -.19, p < .01$)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의 정서조절곤란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과민 반응($r = .37, p < .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표 2.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관계 (N = 379)

		1	2	3	4	5	6	7
기질	1. 경직성	1	-.15*	-.22**	-.15*	.28***	.41***	.60***
	2. 지속성	-.20**	1	.13	.40***	-.21**	.09	-.19**
	3. 활동성	-.31***	.08	1	.13	-.15*	-.04	-.19**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4. 감정코칭 반응	-.16*	.26***	.19**	1	-.61***	.08	-.18*
	5. 감정무시 반응	.29***	-.18*	-.16*	-.71**	1	.31***	.35***
	6. 과민 반응	.21**	-.06	-.08	.14	.08	1	.37***
정서조절곤란	7. 정서조절곤란	.50***	-.23**	-.32***	-.23**	.31***	.23**	1

주. 우상단: 남학생($n = 186$), 좌하단: 여학생($n = 193$).

* $p < .05$. ** $p < .01$. *** $p < .001$.

감정무시 반응($r = .35$, $p < .001$), 감정코칭 반응($r = -.18$, $p < .05$)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정서조절곤란은 기질 중 경직성($r = .50$, $p < .001$)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성($r = -.32$, $p < .001$), 지속성($r = -.23$, $p < .01$)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 또한, 여학생의 정서조절곤란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감정무시 반응($r = .31$, $p < .001$)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과민 반응($r = .23$, $p < .01$)과 감정코칭 반응($r = -.23$, $p < .01$)은 비슷한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과민 반응이 정서조절곤란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남학생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이다.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성별,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곤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을 1단계 독립변인으로, 기질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3단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을 투입한 모형1은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기질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3%($F = 46.12$, $p < .001$)로 나타났고, 기질의 하위요인인 경직성($\beta = .51$, $p < .001$), 지속성($\beta = -.11$, $p < .05$), 활동성($\beta = -.11$, $p < .05$) 모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3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37%($F = 31.50$, $p < .001$)로 증가하였고, 성별($\beta = -.12$, $p < .01$), 경직성($\beta = .43$, $p < .001$), 지속성($\beta = -.10$, $p < .05$), 활동성($\beta = -.10$, $p < .05$)뿐만 아니라, 어머니 반응

표 3.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379)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성별		-.02	-.02	-.08	-.08	-.13	-.12**
기질	경직성			.63	.51***	.53	.43***
	지속성			-.14	-.11*	-.12	-.10*
	활동성			-.13	-.11*	-.12	-.10*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 반응					-.01	-.02
	감정무시 반응					.10	.14*
	과민 반응					.14	.15**
R^2		.00		.33		.37	
ΔR^2				.33***		.04***	
F		.18		46.12***		31.50***	

* $p < .05$. ** $p < .01$. *** $p < .001$.

중 과민 반응($\beta = .15, p < .01$) 및 감정무시 반응($\beta = .14,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이 익숙한 것을 고집하며,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지 못하고,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이지 않은 성향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비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나치게 불안해할수록,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직성, 어머니의 과민 반응, 어머니의 감정무시 반응, 성별, 활동성, 지속성 순으로 나타났다. 경직성, 활동성, 지속성은 성별을 통제한 뒤에도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과민 반응과 감정무시 반응은 성별과 기질을 통제

한 뒤에도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을 설명하는 데 추가적으로 기여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기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정서조절곤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일부 하위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정서조절곤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기질 중 경직성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이 높다는 Vollhardt(1990)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더 높았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과민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남학생의 어머니들이 여학생의 어머니들보다 더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머니 행동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어머니와 동성(同性) 관계인 여학생들이 이성(異性) 관계인 남학생들보다 어머니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동일한 반응에 대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과민하다고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동성인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감을 더 느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어머니가 과잉보호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김수희, 박성연, 2009; 석민정, 오인수, 2014; 채진선, 2007).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남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실제로 더 과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다. 남아의 경우 적대감과 분노는 최대화하며 나약함과 죄책감은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Paley, 1984), 이러한 경향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진다면 남학생들

이 여학생들보다 거칠고 과격한 방식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어머니는 남학생들의 거칠게 표현된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더 과민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질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쳤고, 기질을 통제하고서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경직성이 높을수록, 활동성과 지속성이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정서조절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성은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경직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는 낮은 상황에서 조심성이 많고 행동을 억제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에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 있다(양주경, 2007; 오경자, 양윤란, 2003; 정지영, 김종남, 2011).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순간적으로 경험한 정서를 빠르게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서를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지속성이나 활동성은 경직성보다 상대적 영향력은 낮았지만, 이들 특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곤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이 높은 아동들이 정서조절에 있어 문제중심 및 지지추구와 같은 적응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

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임희수, 박성연, 2002). 한 가지 일에 오랜 시간 몰두하고 집중하는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에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목표한 과제를 성취하는 데에 어려움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적인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새로 출현한 자신의 정서에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에도 타인의 지지를 구하는 등 보다 적응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현장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에 청소년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경직성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남학생들 중 경직성이 높아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청소년의 기질을 통제 한 후에도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도하고 아동기에 비해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정서조절곤란에 있어서 어머니의 행동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타고난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감정무시 반응이나

과민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곤란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력은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인 지속성이나 활동성보다 컸다. 먼저, 청소년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였다. 어머니가 이러한 감정무시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이를 표현하지 않고 억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정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들은 정서조절능력이 낮았을 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강현지, 임정하, 2015; 오지현, 2015).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무시하는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과하게 돌보아주려는 반응을 보일수록 청소년들은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였다. 자녀가 표현한 정서수준보다 어머니가 불안과 불편함을 지나치게 보이는 것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녀의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한 반응을 보고 자녀도 동조하여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이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감정무시 반응이나 과민 반

응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감성코칭 반응은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이예원, 2015; 이지은, 2014; Perry, Calkins, Nelson, Leerkes, & Marcovitch, 2012)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인 반응이 정서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바람직한 코칭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감정무시 반응이나 과민 반응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은 자녀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보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고려한 경우, 단순히 성차만을 살펴본 경우와 달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정서조절곤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유사한 수준의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더라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정서조절곤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관계지향적인 여학생들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동성인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기대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를 무시하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억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등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기질은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쳤고, 기질을 통제된 후에도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기질적 특성을 파악하여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각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감정을 무시하는 반응과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반응 모두 청소년의 정서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지도 및 격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청소년 단일보고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부모 보고나 면접 등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의 정서표현,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도 자녀에게 정서사회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보고 살펴보았으나, 어

머니의 반응이 정서조절곤란에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설명변량 수치는 높지 않았다. 향후연구에서 가족내 전반적인 정서적 분위기를 함께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로 기질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어머니의 행동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가정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현장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주리 (2010). 부모의 양육행동 및 남녀 청소년의 정서지능이 용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지, 임정하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3(3), 265-277.
- 김수희, 박성연 (2009).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01-113.
- 김순재 (1996). 청소년의 기질 및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1).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아동의 분노표현방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희, 이지연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걱정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 곤란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9(2), 3-15.
- 김지연, 남은영 (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 박지선 (2013). 경험논문: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27-746.
- 석민정, 오인수 (2014).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62(3), 491-511.
- 송선미 (2007).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정서성과 정서조절 전략이 문제성 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주경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혁승 (2013). 비전공자를 위한 통계방법론. 서울: 오래.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조합실태조사 (연구보고서 No, 2014-53). 여성가족부.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2: 6 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77-597.
- 오지현 (2013).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타당화. *인간발달연구*, 20(2), 43-69.
- 오지현 (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방식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2), 17-37.
- 오지현, 조미영 (2015).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문제행동 간 관계: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1(2), 225-249.
- 유다미, 안도희 (2015). 청소년들의 관계성(교사-학생), 정서조절 및 학습몰입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3(3), 219-239.
- 이강이 (2007).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56-463.
- 이경남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아동의 기질 및 자아존중감이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8(6), 1209-1219.
- 이예원 (2015). 유아의 기질 및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모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 이윤로 (2004). *사회복지 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재문, 조영구, 이은모 (2014). 청소년의 정서 지능이 공격성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5(2), 77-89.
- 이지은 (2014). 어머니의 정서신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정지영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김종남 (2011). 중학생의 우울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행동억제 기질 간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2), 227-254.
- 채진선 (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혜신 (2007). 남녀 청소년에 따른 부적응도식, 생활스트레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주현 (2012). 청소년의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D.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2.

- Cortez, V. L., & Bugental, D. B. (1994). Children's visual avoidance of threat: A strategy associated with low social control. *Merrill-Palmer Quarterly*, 40(1), 82-97.
- Denham, S. A., Bassett, H. H., & Wyatt, T. (2007).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competence. In J. E. Grusec & P. D. Hastings (Eds.),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pp. 614-637). London: The Guilford Press.
-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13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Garnefski, N., Kraaij, V., & van 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5), 619-631.
- Garner, P. W., & Spears, F. M. (2000). Emotion regulation in low income preschoolers. *Social Development*, 9(2), 246-264.
- Gilbert, K. E. (2012). The neglected role of positive emotion in adolescent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6), 467-481.
- Gottman, J. M., & Nahm, E. Y.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Silva, P. A., McGee, R., & Angell, K. E. (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 Hessler, D. M., & Katz, L. F. (2010). Brief report: Associations between emotional competence and adolescent risky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ce*, 33(1), 241-246.
- Jaffe, M., Gullone, E., & Hughes, E. K. (2010). The roles of temperamental dispositions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urs in the use of tw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lat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1), 47-59.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R.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Journal of Child*

- Abuse & Neglect*, 27(2), 199-213.
- Linehan, M. L.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Guilford Press.
- McLaughlin, K. A., Hatzenbuehler, M. L., Mennin, D. S., & Nolen-Hoeksema, S. (2011). Emotion dysregulation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9), 544-554.
- Melnick, S. M., & Hinshaw, S. P. (2000).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in AD/HD and comparison boys: Linkages with social behaviors and peer prefer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73-86.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Paley, V. G. (1984). *Boys and girls: Superheroes in the doll corn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rry, N. B., Calkins, S. D., Nelson, J. A., Leerkes, E. M., & Marcovitch, S. (2012). Mothers' response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 emotion regulation: The moderating role of vagal suppressio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54(5), 503-513.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 N. Eisenberg,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pp. 105-176). New York: Wiley.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individuality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6(2), 218-226.
- Thompson, R. A., & Calkins, S. D. (1996). The double-edged sword: Emotional regulation for children at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1), 163-182.
- Vollhardt, L. T. (1990). Rigidity: A comparison by age and gender.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8(1), 17-26.
- Weinberg, A., & Klonsky, E. D. (2009). Measurement of emotion dysregulation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21(4), 616-621.
- Windle, M., & Lerner, R. M. (1986). Reassessing the dimensions of temperamental individuality across the life span: The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213-230.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3), 957-973.

1 차원고접수 : 2016. 01. 07.

수정원고접수 : 2016. 02. 14.

최종게재결정 : 2016. 03. 02.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on Adolesc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Lim, JungHa¹⁾ Kang, Hyun-Jee²⁾ Park, Sun-Hye²⁾ Yoon, Sang-Hee²⁾ Choi, Jung-Won²⁾

¹⁾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²⁾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on adolesc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e sample consisted of 379 stud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Seoul area. Using questionnaires, temperament, difficulties of emotion regulation and mother's reaction to negative emotions were reported by adolesc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Pearson's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boys showed a higher level of rigidity than girls. Mothers of boys showed more oversensitive-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than mothers of girls. Second, rigidity, persistency, activity, mother's oversensitive-reactions and emotion-disregard-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significantly predicted adolesc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e mother's reactions to negative emotions significantly predicted adolescent's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 of the adolescent's temperament. The result suggests that despite the effect of temperament, mother's reactions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motion regulation of adolescent.

Keywords: adolescent, temperament, negative emotions, mother's reactio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